

사무실 복귀 대신 사직 ... 구인난 심화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 근무를 채택했다가 백신 보급으로 확산세가 주춤하자 다시 사무실 근무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택 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 중 사무실 복귀 대신 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업의 구인난이 깊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 방송은 전날 1년여간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들 가운데 일부는 종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하기를 원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채용 사이트인 '몬스터 닷컴' (Monster.com)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95%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92%는 기존 일자리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81%가 "사무실 복귀를 원치 않거나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고 싶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유연 근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해온 자동차 마케팅 컨설턴트 블레이

즈 볼록(34)은 "회사가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처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운용 전문업체 라살 네트워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70%는 "올가을 안으로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CNBC는 많은 근로자의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최근 심화되는 구인난은 근로자의 선택 폭을 한층 더 넓혀주고 있다면서 '대량 사직' (Great Resignation)이라는 표현도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퇴직자 수는 4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퇴직률은 2.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6%)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4월 미 기업의 구인 규모는 930만명으로 퇴직자 수의 배 이상이었다.

'몬스터 닷컴'은 "비어 있는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며 "이런 까닭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외부로 눈을 돌리는 근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연방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

연방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미국 감축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규모 등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뉴스1'이 미국의소리(VOA)의 전달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현행 수준인 2만8,500명보다 6,500명 적은 2만2,000명으로 설정돼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켈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 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3,000명에

서 2만8,5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켈러거 의원의실 관계자는 VOA 인터뷰에서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이번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욱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결정이 ●한반도 역지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역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미러 간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해야 한다.

이 밖에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7월 5일 ~ 7월 11일, 2021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쥐</p>	<p>남자 길일 : 7, 8, 11</p> <p>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윗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에 동조하는 지 주위의 분위기에 융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시비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말</p>	<p>여자 길일 : 5, 6, 9, 10</p> <p>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소</p>	<p>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동료들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뜻과 같이 행동하겠으니,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소인배의 감언이설에 주의하고 안으로는 굳은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양</p>	<p>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훌륭한 협조자를 얻으면, 흥이 변하여 길이 될 것입니다. 험한 것을 보더라도 조심하여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지는 법이니, 무모한 용기를 부리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관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롭고 동북쪽은 불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범</p>	<p>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서히 일이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 내면 뜻밖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고 검소한 덕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복록이 생길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원숭이</p>	<p>어둠을 멀리하고 밝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격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세상이 밝고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운세가 강하고 활기차니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듯이, 표면적으로는 원기 왕성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점차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끌어 온 일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토끼</p>	<p>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닭</p>	<p>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용</p>	<p>높은 산이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p>개</p>	<p>진귀한 신선의 약을 얻으며,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운세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처럼,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화단결이 중요합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처세하여야 합니다. 낡은 것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뜻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지금은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므로 장래를 바라보고 산처럼 무겁게 덕을 쌓아야 합니다.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노력하면 넓은 바다에까지 이르는 법. 머지않아 앞길에 밝고 환해질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때를 맞추면 가장 길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지금은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므로 장래를 바라보고 산처럼 무겁게 덕을 쌓아야 합니다. 윗사람이나 선배의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